

2023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개정사항

김영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필요하다면 가격은 평가하지 않고 오직 기술력만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별하겠다는 2019년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도입은 정부 뿐만 아니라 업계의 많은 기대속에 출발하였다. 그러나, 처음 기대와는 달리 낙찰율이 적격심사제 낙찰율보다 하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경쟁력의 정의가 전관을 얼마나 많이 고용하고 있는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면서 점차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잡게 되었다. 종심제 적용대상 금액은 종심제 시행전의 TP와 SOQ와 같지만 TP와 SOQ는 금액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해당되어야 시행되던 제도이기에 난이도가 없는 종심제는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을 기준으로 전체 발주물량의 과반을 넘기기까지 하는 등 과잉집중이 발생되어 국토부와 기재 부간 협의를 통해 대상금액을 일부 상향하여 종심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본 발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개정된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